

줄기세포로 인공육류 생산... 서울대교수의 푸드테크 도전

바이오벤처 '노아' 10월 출범

국내 최초 배양육 생산 제조사
창업신청 3일 만에 승인허가

창업자 박용호 교수

"다음 세대 위한 노아의 방주 될 것"



박용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배양육'을 만드는 회사가 다음 달 문을 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박용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이끄는 바이오벤처 '노아(NoAH)'가 최근 서울대학교 내 창업 허가를 받았다. 노아는 오는 10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배양육은 소와 돼지 등 가축의 근육 줄기세포를 추출해 외부에서 고기 조직으로 키워낸 인공 육류다. 미국에선 '뎀

피스 미트' 등의 스타트업이 배양육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국내에서 배양육 생산을 내세운 기업은 노아가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노아는 서울대 내 바이오벤처로

창업 신청을 한지 3일만에 승인허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3~6개월 걸리는 승인 과정을 이례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기반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기업을 이끄는 이끄는 박 교수는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을 거쳤으며, 현재 UN 산하기구인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가 구성한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수의미생물학 분야에서 눈에 띄는 연구 업적을 쌓아왔고, 이미 2만여개 동물 유래 균주를 확보한 상태다. 기업의 기반이 될 기술 개발에는 박 교수의 제자와 동료, 후배들로 이뤄진 쟁쟁한 연구진이 참여한다.

노아는 우선 동물용 유산균을 활용해 슈퍼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항생제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연구에 참여한 박건택 인제대학교 교수는 "이미 100여종의 동물용 유산균을 확보했고, 항생제 내성균을 대상으로 젓갈 유래 유산균의 실험 결과 슈퍼박테리아의 항균력이 탁월한 항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술은 사업 초기 노아의 캐시

카우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용호 교수는 "동물용 유산균을 활용해 항생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동물 뿐 아니라 인체에도 활용된 미생물을 발굴하고 있다"며 "노아의 설립 후 1~2년 가량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생제를 인체에 전달하는 수송체에 변화를 줘 항생제 효과를 높이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미시시피주립대 서근석 교수는 "모든 미생물 생존에 필요한 화학물 수송체를 항생제와 결합해 기존 항생제의 항균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 신항생물질 개발이 가능하며, 신화학물질추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세포배양액을 사용해 자가면역질환 극복에도 나선다. 서 교수는 "부작

용과 치료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호 교수는 "앞으로 5~10년 안에 동물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해 고기 구성 주요 성분을 합성하고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배양육을 생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노아는 초고령 사회에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꿈꾼다.

박 교수는 "NoAH는 'Niche of Animal Health'의 약자로,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헬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란 뜻"이라며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연구 결과와 독자적인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이끌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제넥신-툐젠, 합병 무산... "협력은 지속"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발목

유전자 가위와 면역항암제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넥신과 토크젠의 합병이 결국 무산됐다. 바이오 업종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발목을 잡았다.

제넥신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토크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제넥신과 토크젠이 합병계약 승인 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접수한 결과, 제넥신과 토크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각각 1300억원과 5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제넥신 주식매수청구주식 수가 보통주 344만2486주, 우선주 146만5035주이고 토크젠 주식매수청구주식 수는 보통주 151만3134주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측에 적정가에 매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바이오 업종 침체 영향으로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

사가격을 밀들면서 많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제넥신은 지난 6월 코넥스에 상장된 토크젠을 흡수합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넥신은 면역항암, 유전자백신 분야에서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이고, 토크젠은 제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유전자 가위 업체다. 두 기업의 만남으로 혁신 유전자치료제 탄생할 것이라 업계의 기대도 컸다.

제넥신과 토크젠은 합병이 무산됐지만 지속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미 합병 시도 전부터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관계를 수립한 상태다. 제넥신이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하이루킨'과 토크젠의 유전자 교정 기술인 '하이루킨'과 토크젠의 유전자 교정 기술인 '하이루킨'을 융합해 차세대 면역항암제인 카티(CAR-T) 세포치료제를 만들 계획이다.

제넥신 관계자는 "하이루킨과 토크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존 CAR-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동종유래(Allogeneic) CAR-T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할 것"이라며 "2020년 하반기에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이경규의 꼬꼬면 신화, '이젠 치킨으로!'

돈치킨 마라맛 '허니마라치킨' 출시
얼얼한 후+달콤한 맛으로 호불호 ↓
이경규, 직접 레시피 개발에 작명도

"이번에 선보이는 허니마라치킨은 얼얼한 마라맛과 함께 꿀의 달콤함이 포인트입니다. 요리가 바쁜 일상 속 저의 힘이 됐듯, 이경규 치킨이 많은 분들의 일상에 힘이 되는 메뉴가 되길 바랍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는 구운 치킨 브랜드 돈치킨이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돈치킨은 이날 이경규 치킨'을 선보였다. 기존의 국내 250개, 해외 51개인 가맹점 및 매장을 2025년까지 국내 500개, 해외 5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해외 진출의 경우 돈치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아직 진출하지 않은 글로벌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돈치킨과 이경규가 손잡고 함께 선보인 일명 '이경규 치킨'은 허가 얼얼해지지만 매운 맛인 '마라'를 기본으로 달콤한 맛을 더한 '허니마라치킨'이다. '마라'는 매운 맛을 내는 중국 사천 지방의 향신료로 저릴 마(麻)와 매울 탈(辣)을 쓰는 만큼 허가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얼



방송인 이경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돈치킨 X 이경규 신메뉴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신메뉴 '허니마라치킨'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한 맛을 의미한다. 돈치킨의 '허니마라치킨'은 화자오와 산초를 사용해 얼얼한 매운 맛을 살리면서 100% 국내산 벌꿀로 허를 달래주는 달콤한 맛을 더했다.

돈치킨의 주주이기도 한 이경규는 본인의 요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번 신메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6개월에 걸친 개발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마라맛이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돈치킨은 이번 허니마라치킨 론칭을 기념하며 사각 피자 증정 이벤트를 함

께 실시하고 월간 10만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돈치킨은 '돈키호테의 열정'을 담아 '돈치킨'이라고 이름 지었다. 100% 국내산 냉장육 닭고기를 사용하면서 해썬(HACCP) 인증을 획득한 최첨단 생산·가공 공장을 통해 매일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했다. 본사를 포함한 총 10개의 전국 자사 체인망을 통해 신선한 식자재를 배송하는 한편 돈치킨만의 특별한 염치 방식을 채용해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살 속까지 깊은 맛을 낸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광동제약 소비자들과 '옥수수가족환경캠프' 성료

광동제약은 제12회 옥수수가족환경캠프를 최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광동제약이 주최하고 (사)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친환경 농업과 농촌 체험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에서 열렸다. 광동제약은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옥수수' 혹은 '광동 옥수수수염차'와 관련된 사연을 접수해 사전 심사를 거쳐 총 100여명의 가족을 초청했다.

참가자들은 농가에서 옥수수 재배 과정과 건강에 이로운 점, 좋은 옥수수 선별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수확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회사측은 이 밖에도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손두부 만들



광동제약이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에서 진행한 '제12회 옥수수가족환경캠프'에 참가한 가족이 옥수수를 직접 수확하고 있다.

기와 환경 골든벨 퀴즈, 에코백 만들기, 자연 속 초록보물 찾기 등을 마련했으며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영화제'도 개최했다. /이세경 기자

JW 개발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 유럽 진출

JW가 개발한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가 유럽에서 정식 출시됐다.

JW홀딩스 자회사인 JW생명과학은 수액제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박스터가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 피노멜(국내 제품명 위너프)을 유럽 시장에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피노멜은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지질 성분인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이상적으로 배합한 3세대 영양수액으로, 현재 출시된 3세대 영양수액 중 오메가3 성분 함량이 가장 높고 비타민E가 포함되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 제품은 정제어유(20%), 정제대두유(30%), 올리브유(25%), 코코넛오일(25%) 등 4가지 지질 성분과 포도당,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타 제품보다 33% 더 높은 함량의 정제어유를 함유하고 있어 오메가3지방산의 함유량이 더 많다.

JW생명과학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 전자동화 생산라인을 증설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유럽연합 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EU-GMP)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준비해왔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29일 피부건강강좌

이대서울병원이 오는 29일 오후 3시 지하2층 대강당에서 '건강하고 맑은 피부'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대서울병원 피부과 이민영 교수(사진)가 강의하는 이번 건강강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자 모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